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6년도 표어 ⊗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이종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장애우 주일 메시지

## 하기 어려운 사랑도 하게 하소서



**목사 이종윤(서울교회 담임)**

사랑에는 하기 쉬운 사랑도 있지만 하기 어려운 사랑도 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하기도 쉽고 유쾌

한 사랑이지만 배신자를 사랑하고 쓸모없고 천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기 어려운 사랑이다.

가깝고 친한 사람 사이에 선물을 주거나 시간을 주는 것은 하기 쉬운 사랑이지만 원수나 내게 손해를 주거나 내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며 값진 선물을 주는 것은 정말 극난한 사랑이다.

기분과 형편을 따라 가끔 사랑을 베푸는 것은 하기 쉬운 사랑이지만 영구히 변치 않는 사랑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실로 힘든 사랑이다.

\* \* \*

그러나 하나님은 배신자요 쓸모 없고 천한 우리를 위해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신다. 죄인을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영

원하고 책임있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극난한 사랑이다.

\* \* \*

이제는 나도 하기 힘든 사랑도 할 수 있기를 기도

한다.

가르치고 도와봤자 효용가치도 없고 인간구실조차 하기 어려운 이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저들에게도 임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오늘도 눈 멀고 말 못하고 걸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저능아로 살고 있는 이들에게 누가 볼 수 있는 눈이 되어 주고 말할 수 있는 입이 되며 걸을 수 있는 다리가 되어줄 저들의 길동무가 될 것 인지 주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고 계신다.

장애우 주일에 “소외되고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기 힘든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자.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
- KISB(코리아 위성방송)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장애우 주일에 사랑의 천사의 눈길을!

오늘은 장애우 주일이다.  
정신지체나 육신 지체로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 장애우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담백 담은 선물이 있다.  
우리교회 사랑부와 예배다부 장애우들에게 교회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바람막이 자켓(wind stopper)을 각각 선물로 전하고 저들을 격려한다.  
또한 호스나 학교 학생들에게는 주중에 자장면 파티를 열어주고 저들에게 사랑을 전달키로 하고 오늘

주일에는 모든 장애우들에게 떡잔치도 베푼다. 찬양 예배 시간에는 장애우들이 정성껏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의 사랑어린 시선과 관심이 저들에게 계속 있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지체가 되어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 교회학교 교사 연합교육 및 기도회

4월 27일(목)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교육위원회(위원장:김세재 장로)는 교사들의 영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2006년 상반기 교사 연합교육 및 기도회를 오는 27일(목) 오후 7시부터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장신대 김운용 박사를 모시고 "위대한 예배자를 빚고 세우는 장"이라는 제목으로 2시간 동안 특강과 기도회를 갖는다.  
특강 강사로 초빙되는 장신대 교수이신 김운용 목사는 '교회는 신앙공동체이다. 예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삶의 승리를 누릴 수 없기에 우리의 아이들과 학생들을 공동체 안에서 위대한 예배자로 빚고 또 세우는 일이 교사들의 가장 중요한 본분임을 전하고 싶다'며 '예배가 오락으로, 사역이 공연으로 전락하는 현대 교회교육의 위기를 바라보며 보다 역동적인 교

회학교 예배를 위해 교사들의 솔선수범과 아이들 속에 위대한 예배자의 그릇을 빚고자 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는 시간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  
오후 6시부터 8층 만나홀에서 각 부서별 식사 및 친교모임이 있고 7시에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경건회로 모이는데 전 교사는 출석카드를 제출하고 각 국별로 지정된 좌석에 미리 착석해 줄것을 요망하고 있다.  
특강 후에는 교회학교와 교사, 그리고 맡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기도회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전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부탁 드린다.

## 디아스포라 영어교실 이렇게 운영한다

5월1일(월) 오후 7시 개강

우리교회는 인권과 복음의 사각지대인 북한체제를 탈출하여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탈북 청소년을 위한 디아스포라 영어교실을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탈북 청소년 들은 영어의 기초가 없어 중, 고, 대학 과정의 원만한 학업이수가 어렵고 신앙 및 사회정착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  
때문에 우리교회는 이들을 돕기 위하여 국내의 유명 대학 영문과 교수진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가르치는 디아스포라 영어교실을 개설하여 오는 5월1일(월) 개강을 한다.

디아스포라 영어교실은 1학기를 10주로 하는 3학기제로 운영하게 되며 기초반과 중급반으로 나뉜다. 1학기는 정규학교 학사일정에 맞춰 야간반으로 운영되고 2학기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주간으로 운영된다. 3학기는 다시 정규학교 학사일정 기간에 맞춰 야간으로 운영된다. 강의는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네 번 있고 매 학기 등록금이 20,000 원이다.  
한편 지난 4월22일 토요일에는 본 건과 관련한 설명회와 선발상담이 탈북자들의 큰 호응과 관심 속에 열렸다.

## 제13기 찬양대양성반 개강

오늘 오후 1시30분 601호에서

제13기 찬양대양성반이 오늘 오후 1시 30분 601호에서 개강한다. 찬양대양성반은 7주 동안 찬양대원으로서 필요한 기초음악이론과 발성연습 등을 배우는 과정으로 서울교회 찬양대원으로 봉사할 성도

들은 반드시 찬양대양성반을 수료하여야 한다. 앞으로 우리교회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 선교사 모집 공고

세계선교의 교두보가 되고 복음의 센터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우리교회 당회는 2006년도에도 00명의 선교사 파송계획을 발표하였다.  
선교사로 소명을 받고 사명감을 갖고 준비된 선교사 후보는 서울교회 홈페이지(<http://www.seoulchurch.or.kr>)에 공고된 자세한 내용을 보고 지원하면 된다.

## 카자흐스탄 단기선교팀 훈련 일정 잡혀

오는 8월 카자흐스탄으로 파송받는 카자흐스탄 단기선교팀의 훈련일정이 잡혔다.  
카자흐스탄 단기선교팀은 5월8일까지 세계선교대학을 수료하고 난 후 5월15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훈련을 받게 된다.  
최종 마감된 단기선교 참여자는 총 30명으로 이은준 강해정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으로 파송받아 교회건축, 이미용, 여름성경학교 등을 열어 다양한 선교활동을 펴게 된다.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단기 선교팀 훈련계획>

- 5.15: 오리엔테이션
- 5.22: 카자흐스탄 선교의 역사 - 장석남 목사
- 5.29~6.26: 언어실습 및 팀별 훈련
- 7.3 : 선교바자회 준비
- 7.9 : 선교바자회 (7.9, 16, 23, 30)
- 7.17: 중간 점검
- 7.31: 물품구매 및 최종 점검

## 소요리 문답부 수료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소요리문답부(부장: 이하주 집사)가 오늘 수료한다. 소요리문답부는 총 48과로 구성된 커리큘럼으로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한 깊이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공부를 통해 성도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오늘 수료하는 성도들은 교회학교 교사로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도 받게 된다.  
더욱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인격을 쌓아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기도한다.

## 금주의 성구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 며 (고전 15:14)  
And if Christ has not been raised, our preaching is useless and so is your faith. (1 Corinthians 15:14 [NIV])

장애우 주간

# 연약함의 신비

김예중 집사(13교구, 사랑부 교사)

제가 사랑부 교사로 장애우들을 섬긴 것은 2달 전 호산나 학교가 설립될 즈음입니다. 결혼 전부터 장애우 사역에 비전을 가졌던 저는 호산나 학교가 설립되면서 그 안에 믿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를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전도학교 13, 14기를 마쳤고 70인전도대에서 장애우를 담당하는 실로암 팀장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저들을 전도하는 일이 곧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호산나 학교의 두 아이들을 전도하여 사랑부로 인도하게 하셨고, 담당 교사로 저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영적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주일마다 만나지만 그래도 보고 싶어 주중에 전화를 하며 안부를 묻고 사랑부 공과의 십계명을 반복하여 암기하도록 도와줍니다.

날마다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저는 이 아이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초신자이지만 교사인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영성을 소유한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지금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장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이며 연

약함의 신비를 가르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장애우들은 이 땅에서는 외롭게 살아갈지 모르나 이미 천국을 소유한 복된 자들입니다.

뒤늦게 사랑부 교사로 합류한 저는 오래 전부터 사랑부를 섬기시는 여러 집사님들을 보면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여러 종류의 장애와 그중에는 복합 장애를 가진 중증 장애들을 돌보면서 낙심치 않고 인내하고 헌신하면서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어 복음을 가르치는 모습이 마치 천사의 모습 같았습니다.

장애우 주일을 맞으며 사랑부에서는 작은 음악회를 갖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세상의 누구보다 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일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홀에서 장애우를 만나시면 웃어주세요. 손도 한 번 잡아주세요.

하나님께 받으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시면 우리의 장애우들은 더욱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하나님이 주신 비전

박한샘(사랑부)

안녕하세요. 얼마전 대학생이 된 그러나 사랑부에 출석하고 있는 박한샘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랑부에 온지도 벌써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한번 바뀌었을 세월입니다.

처음엔 교회와 하나님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호기심에 그냥 친구의 권유로 다녔습니다.

하지만, 점점 다니면서 하나님의 대한 믿음이 커지고, 신앙심이 깊어져 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친구들과의 교제, 그리고 사랑부에 있다가 일반고등부에 올라가 일반학생들과 경쟁하면서 우정을 쌓았던 일 등.

이런 저에게 좋은 경험을 하게해준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해 생긴 자신감은 저에게 큰 비전을 심어 주셨습니다.

성경말씀 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 두었다가 힘들때나, 슬플때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특별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훈련에 의해 만들어 지는 것을 전하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받은 기적을 이웃들에게 전해주고 싶고, 하나님을 통해 이보다 더 성장하여 하늘나라를 확장하는데 앞장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고3과 취업생을 위한 기도

# 주님! 응답하소서

이은의 권사(5교구, 중등부 부감)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적고 연약하여 두려워하고 불안하며 근심, 걱정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온전히 맡기며 주님 의지하고 아될 때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강한 능력의 소유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진학하거나 취업하여 사회진출을 꿈꾸는 사랑하는 고3 학생들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를 결단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학을 하는 학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변화에 두렵거나 떨리지 않도록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적성이 어떤 것인지, 무슨 취업을 할 것인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며 망설여 질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앞드려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이들 또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주님 주시는 비전으로 장래를 설계하고, 미래를 꿈꾸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 힘든 역경과 깊은 고난 뒤에 오는 기쁨을 만나는 이들 되게 하옵소서.

그 힘든 고3시절의 인생의 고지를 믿음으로 정복하였다는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학생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와 나라의 참 일꾼으로 지혜로운 리더로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가조찬기도회 전야제 - 세계 평 · 화 음악회

# 평 · 화 음악회

제 38회 국가조찬기도회의 전야제인 평 · 화 음악회가 지난 4월 19일(수) 오후 7시 우리교회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와 대한민국교회조찬기도회가 주최하고 믿음의 기업인 (주)신원의 에벤에셀 합창단이 주관한 이번 평 · 화음악회는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평 · 화음악회가 열리기 전 헌신예배에서 이종윤 목사는 시편 147편의 말씀으로 설교하시며 "찬양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이며 불의와 불충으로 얼룩진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전쟁의 폐허에서 일으키시어 번영으로 인도하시며 복을 주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해야 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한인수 장로의 사

회로 진행된 평 · 화음악회는 170여명의 에벤에셀 합창단과 국내 최고의 솔리스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을 노래했다.

국가조찬기도회는 국가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국가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으로 1966년 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통령조찬기도회'가 효시가 된 것으로 이번 제 38회 국가조찬기도회는 3부 요인과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4월 20일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한반도와 세계평화, 국민화합, 경제번영'이라는 주제로 열려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허숙(편집부)



##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교회 마리아 전도회(회장: 최미아 권사)는 부활절을 맞아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증거하기 위해 우리교회가 위치한 대치동 치안을 담당하여 밤낮으로 수고하고 있는 수서경찰서 소속 대치지구대 경찰(전경포함) 여러분께 주님의 부활을 알리는 달걀 바구니를 준비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스데반회는 부활절 전날 토요일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주님의 부활을 기쁜 마음으로 맞기 위해 교회 지하 1, 2, 3층에 쌓인 먼지와 염화 칼슘 등 오염물질을 물을 뿌려 대청소 하였다.



▲ 주님의 부활을 대치지구대 경찰에 전한 마리아회

만민에게 전도 - 학교앞 전도

# 천하보다 귀한 생명

오광환 집사(유년부 부장)

유년부에서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어린이 전도를 위해 교사들이 인근 초등학교 앞에 나가 전도를 실시하고 있다.

작년의 수요전도대신 금년에는 학교 수업이 있는 때 1, 3, 5주 토요일에 수십 명의 유년부 교사와 학부모 형들이 오전 11시 30분에 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전도물품을 챙겨 12시 학생들의 수업이 끝나기 전 교회 인근 4개 초등학교 (대곡, 대치, 대현, 대도 초등학교)에 나가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서울교회를 소개하고 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아 아침 일찍부터 예쁘게 장식한 부활절 달걀을 정성껏 준비하여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주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



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교회에 나오기를 초청하였다.

많은 교사와 학부모, 70인전도대를 통하여 금년 1/4 분기 동안에 40여명이 넘는 새로운 식구들을 붙여주셔서 어렵게만 생각되던 금년 유년부 출석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국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섬기며 수고하시는 교

사들의 헌신을 볼 때마다 이들의 숨은 봉사과 기도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과 같이 봉사하며, 매주 '선생님' 하며 달려오는 어린이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할렐루야!

### 교회외시는 길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전하기 위하여
2. 호산나 복지법인과 소외된 이들을 위한 사랑의 집터를 위하여
3. 북한외의 신앙자유와 디아스포라 영어교실 개설 위하여
4. 이웃나라 일본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7일(목) 복음신앙동지회 모임을 갖는다.
- 서영림 성도(이미경 성도 남편, 이종윤 목사 셋째 사위)는 28일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공학박사(Ph. D.)학위를 받는다.
- 주간식당 봉사: 권사회(4월23일) 발림성교회(4월30일)
- 금주의 식사 제공: 조정식 장로 김영식 권사 가정 (범사에 감사하며) 윤용근 집사 남욱진 집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